

제목	국문	일개 암 전문병원에서 시행한 암의 고지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the Truth-telling of Cancer Diagnoses in a Hospital Specialized in Cancer			
저자 및 소속	국문	조영숙 ¹ , 윤태영, 최봉근, 최종명, 박순영, 유동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의료행정학과 ¹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문	Young Sook Cho ¹ , Tai Young Yoon, Bong Keun Choe, Joong Myung Choi, Soon Young Park, Dong Joon Lew Dept. of Medic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Kyung Hee University ¹ , Dept. of Preventive Medicine, School of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분야	보건관리 [기타]	발표자	윤태영 [일반회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의학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질병구조가 급성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 질환의 비중이 높아지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암 발생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p> <p>전 인류의 4 분의 1 이 평생 암과 관련을 맺고 살아간다. 즉 이들 중 3 분의 1 은 암 진단을 받았지만 다른 원인(사고, 다른 질병 등)으로 사망하고, 3 분의 1 은 암에 걸린 사실을 모르다가 죽은 후에 부검에 의해 암을 발견하게 되며, 나머지 3 분의 1 은 암 때문에 사망한다. 이런 것을 보면 암에 대해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p> <p>도려내도 시원치 않다는 뜻에서 '癌적 존재'라는 상용어가 있듯이 '암에 걸렸다'라는 말은 병 자체 외에 동통, 일그러진 용모, 입원, 임종박두 등등 갖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어 암이 주는 공포란 말 할 수 없이 크다.</p> <p>이러한 공포 때문에 진단의 결과 암이라고 확진 된 경우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어야 하는 지, 알려주지 않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오랫동안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왔다. '어느 것이 옳고 틀리다'는 것을 단정지어 말 할 수는 없겠으나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의 가치판단은 사람에 따라 각각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p> <p>우리나라에서는 임종에 관한 논문은 비교적 많이 있으나, 암 진단 고지와 관련된 최근 연구는 많지 않아 입원 환자 중 90%가 암 환자들인 W 병원을 대상으로 암 환자와 보호자들의 암 진단 고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암의 치료와 간호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p> <p>2. 방법</p> <p>1. 연구대상</p> <p>본 연구는 2000 년 11 월 현재 서울 시내에 소재한 일개 암 전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암 진단이 확정된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목적을 설명한 후 본인이 승낙한 환자 123 명과 병동에 입원해 있는 보호자 중 설문 해주기를 허락한 263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0 년 11 월 6 일부터 7 일까지이었다.</p> <p>2. 조사도구</p> <p>선행 논문 중에서 암 진단 고지에 대한 조사시 사용했던 질문들을 인용,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하여 환자용 설문지는 8 문항으로, 보호자용 설문지는 환자와의 관계를 묻는 1 개의 문항을 추가하였고, 암 진단 고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환자용 설문지는 10 문항이었으며, 보호자용 설문지에는</p>					

병명을 누구에게서 들었는가를 제외시킨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

입원해 있는 환자 중 사전에 교육받은 4명의 면담자가 병실에 들어가 먼저 진단명을 물은 뒤 환자에게 면담자가 설문내용을 질문하여 대답한 결과를 기록하였다.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보호자 중 설문지를 해주기를 허락하는 사람에게 주고 수거하였으며, 나이가 많거나 설문지 해독이 어려울 것 같은 보호자에게는 설문지를 읽어 준 후 대답을 면담자가 직접 기입하였다. 또한 보호자용 설문지는 다양한 그룹의 선정을 위하여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낮에 상주하는 보호자, 저녁시간에 오는 보호자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한 병동에서 낮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2회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각 항목별로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했으며, 통계처리는 SPSS/PC 를 이용하였고, 각 변수별 유의도는 Chi-square test 로 검증하였다.

3. 결과

1. 암 진단의 고지에 대해 암이라는 진단을 알려주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로 환자의 85.4%, 보호자의 52.1%가 찬성하여 암 고지에 대해 환자의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암 진단의 고지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암 환자와 보호자 모두에게서 '향후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가 가장 높았다.

3. '만약 자신이 암이라고 진단된 경우 사실대로 알려주면 좋겠다'는 환자가 86.2%, 보호자는 72.0%로 환자의 경우에 더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가족 중에 누가 암이라면 알려 주겠는가에 대하여는 '사실대로 알려주겠다'가 환자 72.4% 보호자 48.3%이었다.

5. 암 환자에게 진단을 알려준 사람은 의사가 7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이 알려준 경우는 19.7%로 나타났다.

6. '누가 병명을 알려 주는 것이 좋겠는가'에서는 암 환자와 보호자가 각각 의사로 78.0%, 48.3%로 나타났으며, 보호자의 경우는 47.5%가 가족이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암 진단 고지 시기는 '진단 받은 즉시'가 환자 81.3%, 보호자 52.1%로 전체 응답자의 61.4%로 가장 많았다.

8. 암 진단 후 치료에 대한 최종 결정은 '환자와 가족이 상의하여'가 환자가 52.0%, 보호자가 63.9%로 가장 많았다.

9. 암일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은 환자와 보호자의 경우 모두가 '가족에게 미칠 영향'으로 환자의 37.4%, 보호자의 41.8%로 가장 높았다.

10. 암 진단을 알릴 때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환자나 보호자 모두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4. 고찰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이전의 문헌에서는 대체로 알려주지 않는 쪽을 모든 의사가 택하고 있고, 이는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외의 경우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통고 반대측 주장은 '아직도 일반대중은 암은 불치병으로 결국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공연히 죽는다는 공포심만 갖게 하는 통고에 반대한다'는 것이고, 찬성측은 '암은 여러 가지 복합치료가 필요해서 이것의 수행이 환자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니 알려야 하며, 또

진단과정에서는 의사, 간호사, 가족들의 태도에서 쉽게 눈치를 채어 불신을 당하는 것보다는 '알리는 쪽이 좋다'는 것이다. 절충론의 하나로 '고식적 치료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고, 재발되었거나 치유율이 높은 암의 경우에는 알린다'는 의견이 있다.

과거에는 질병에 대한 치료는 전적으로 의사의 전권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 의식이 높아져 의료에 있어서는 환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므로 환자의 동의는 의료행위의 정당화의 적극적 요소로 간주되고, 환자의 동의가 실질적인 것이 되기 위하여는 의사는 환자에게 그가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와 내용, 그 치료방법과 그에 따른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이른바 설명의 의무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는 환자의 권리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점차 수정을 받게 되는 바이지만 설명의 목표는 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사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의거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변화된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치료 수단을 변경하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

궁극적으로 병명을 고지할 경우는 환자에게 유익해야 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또한 가족과 사회가 원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암 진단을 고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계속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의료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